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999-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면 2길 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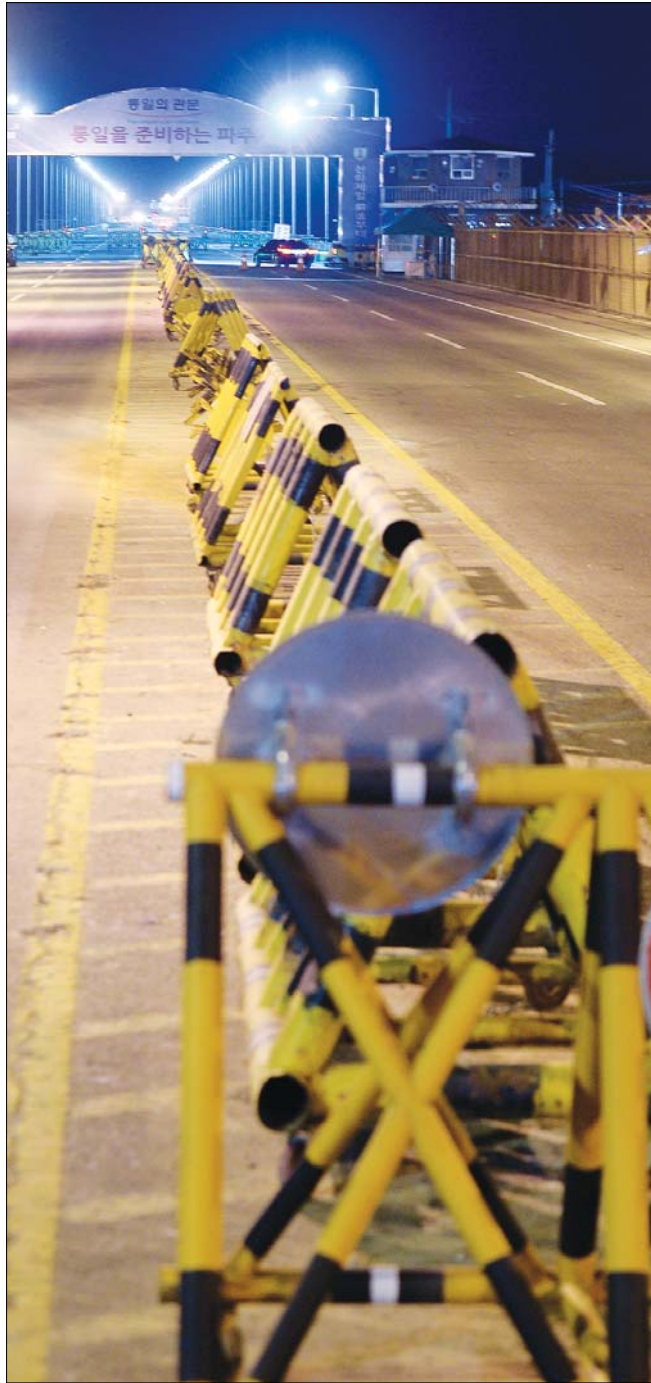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음 1월 5일)

제14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개성공단 도내 입주기업 '멘붕'



"인터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다"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발표로 도내 입주기업들이 공황상태에 놓였다. <관련기사 3·4·6·7면>
남북 경제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걸고 입주한 도내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이번 발표에 대책마련은 커녕 뉘를 잃은 모습이 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대부분이 의류 등 섬유업체인 이들 기업은 당혹감과 함께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산 장비와 설비 피해는 물론 주문량을 제때 맞추지 못해 바이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회사가 떠비될 지경이다.
전주에 본사를 둔 A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운영중단 결정 발표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야 들었다"면서 "상황과라 쫓다"고 다급히 전화를 끊었다.

Report 4개 업체 '청천벽력' 충격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위해 일방적 발표
주문 소화못해 바이어 손배 청구 등 피해 우려
긴급 마라톤 회의 등 긴박감... 도, 지원책 모색

해 9월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다시 조업 활동이 중단된다. 대체생산지역 알선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실상 폐쇄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경영 보상금 지급과 협력기업 특별대출 지급, 긴급 안정자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나설 예정이다.
덧붙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생산지역 알선과 산업·고용분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반발과 함께 큰 충격 속에 빠졌다.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 중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는 성실섬유, (주)광일, 동화개성, 개성제일상품, 제이패션 등 7개 업체로 총 2,062명의 북측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272명의 북측 종업원이 유아복내의를 생산하는 B업체는 "회사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면서 "사장 등 결정권자가 아무도 없다. 통화가 힘들다"고 긴박한 회사 내부모임을 전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5월 투자금 100억원을 들여 개성공단에 입주해 현재까지도 은행에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외와 잡웃을 생산하는 C회사와 유아복을 만드는 D회사는 온종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느라 실무자들의 전화통화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들 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위기에 전북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긴장감 감도는 통일대교 남단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의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 동결 조치가 이뤄진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메일 INDEX
2면 새민금사업 추진 특별법 시행

3면 개성공단 사태 정동영 복귀 디딤돌



2016년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6년 2월 18일(목)부터 2월 19일(금)까지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전주매일신문
-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 접수기간: 2016년 2월 17일까지
- ▲ 참가접수: 이메일(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 홈페이지(www.jjmaeil.com)
-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정부, 개성공단 합동대책반 가동

더민주, 외통위 단독 소집
또 정부합동대책반 산하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을 설치해 산업부 1급을 반장으로 두기로 했다.
야당도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를 단독 소집기로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현안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12일에 소집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해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2016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를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

새로운 시작
군산시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